

# 『화차(火車)』에 투영된 “바람직한 자신(あるべき自分)”의 모습

윤혜영\*

(e-mail : yun1971@cnu.ac.kr)

## < 목 차 >

1. 들어가기
2. 다양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양상
3. 현실에 눈을 감은 쇼코
4. “제대로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이쿠미
5. 나가기

키워드 : 火車(*kasya*(*fire chariot*)), 錯覚(*self-delusion*), あるべき自分(*Desirable self-concept of modern human beings*), 関根彰子(*Sekine Shoko*), 本多郁美(*Honta Ikumi*)

## 1. 들어가기

『화차(火車)』(『小説推理』1992.3~6)는 미야베 미유키(宮部みゆき, 1960~)의 첫 사회파 미스터리 장편소설이다. 마이홈의 불에 편승하려고 무리한 대출을 한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다중채무(多重債務)의 부담을 안고 도망자로 살아가는 신조 교코(新城喬子 이하 ‘교코’)가 다른 여성의 삶을 빼앗은 경위를 형사인 혼마 슌스케(本間俊介 이하 ‘혼마’)가 파헤치는 것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다.

미야베 미유키의 작가로서의 명성을 높여준 이 소설은 1993년에 이야기성이 뛰어난 작품에 수여하는 야마모토 슈고로(山本周五郎)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 『이 미스터리가 대단해(このミステリーがすごい!)』(1993.1 宝島社)의 베스트 10 중 2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드라마, 한국에서는 영화로 제작<sup>1)</sup>

\* 충남대학교, 부교수, 일본근현대문학

1) 『화차』는 토요와이드극장 <화차 카드 파산한 여자!(火車 カード破産の女!)>(1994.2.5)라

되어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 모으면서 다시 한 번 화제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소설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영화에 입각하여 주제를 도출하고 인물조형의 특징 및 사회문제를 분석하거나 원작과 영화의 차이 및 각색 등을 중심으로 한 평론이 많은 편이다.<sup>2)</sup>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은 버블경제의 붕괴, 신용불량, 개인파산, 고독<sup>3)</sup>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교코에게 집중되어 있다. 소론의 형태로는 집을 사는 아버지에 주목하여 “아버지 자신이 ‘부친’의 이미지를 갖지 못하는 현대가족의 모습을 그린 것”<sup>4)</sup>이라는 논이나 시대의 변용양상에 주목하여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사회파 추리소설과 비교한 것<sup>5)</sup> 등이 있는데, 이 또한 논 의 출발점이나 중심은 교코이다.

그런데 작품을 면밀하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착각’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사용되고 있고, 등장인물들의 삶이 다양한 착각에 의해 일그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코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키네 쇼코(関根彰子 이하 ‘쇼코’)에 대해 “바람직한 자신(あるべき自分)<sup>6)</sup>의 모습을 찾는 대신에 그러한 모습을 발견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울을 산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작가는 정보의 범람으로 인한 유혹과 모순에 가득 찬 사회를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음과 동시에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인물이 쇼코, 그리고 쇼코와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혼

는 드라마(2시간)로 제작되어 방영되었고, 2011년 11월 5일에 방송된 <미야베 미유키 원작 드라마스페셜 『화차』>는 시청률 17%를 기록하였다. 한국에서는 2012년에 영화로 제작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 2) 강준상(2012) 「<화차> 왜 그녀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가?」 『월간 한국노총』 48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p.46, 김경애(2017) 「트랜스미디어 현상과 문화적 변주 -소설 『화차』의 영화 <화차> 각색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문화이론연구』 69 현대문화이론학회 pp.5~26, 이윤중(2015) 「젠더화된 속물성과 동물성 -<화차>와 <건축학개론>을 중심으로」 『石堂論叢』 63 東亜大学校附設 石堂傳統文化研究院 pp.95-126. 등
- 3) “독자도 불행 ‘왜?’라고 묻고 그리고 ‘응’이라고 수긍하는, 이러한 ‘외로운 인간관찰’이 이 장편소설을 지탱하는 절묘한 맛이다” (佐高信(2013)「解説」『火車』新潮社, p.691.)
- 4) 谷川充美(2006)「家を買う父--宮部みゆき『火車』、『理由』における父親像から」『安田女子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12, 安田女子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p.217.
- 5) 高橋敏夫(1993)「『火車』追走--松本清張と宮部みゆき」『すばる』15(11), 集英社, pp.280-299.
- 6) ‘あるべき自分’은 ‘본연의 자신’, ‘마땅히 있어야 할 자신’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본 논에서는 ‘바람직한 자신’으로 해석하였다.

타 이쿠미(本多郁美, 이하 ‘이쿠미’)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착각’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양상을 살펴보고, 쇼코와 이쿠미를 통해 “바람직한 자신”의 모습의 구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다양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양상

『화차』에는 다양한 장면에서 ‘착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교코의 행적을 찾던 혼마는 교코의 전 남편인 구라타(倉田)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의 눈가가 축축한 듯하다고 느끼는 혼마의 착각, 잘못된 판단과 욕심으로 인해 불행해진 교코의 아버지나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모텔하우스를 보러 다니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교코의 착각, 쇼코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으로 쇼코의 시체를 찾아다니고 교코를 만나면 먼저 말을 걸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혼타다모쓰(本多保 이하 ‘다모쓰’)의 착각 등이 그 예이다.<sup>7)</sup> 착각인 줄 알지만 그렇게 믿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나 착각 때문에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하는 인물들의 양상이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자기파산한 쇼코의 처지를 이해하고 한때 자신의 집에 살게 해준 미야기 도미에(宮城富美恵 이하 ‘도미에’)라는 여성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혼마와 다모쓰는 쇼코의 행적을 쫓는 과정에서 도미에를 만나는데 삼십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이미 바에서 일한 지 7,8년 되었다고 말한다. 긴 손톱, 화려한 샌들,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 향수의 향, 허스키한 목소리로 묘사되는 도미에는 겉으로 보기에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물씬 풍기

7) 「別れ際にもう一度だけ会積したとき、倉田の目が潤んでいたような気がした。錯覚だったかもしれない。そうあってほしいと思ったから、そう見えたのかもしれない。」 p.546.  
「昭和五十年代後半のサラ金パニックの根底には、マイホーム願望と、そこから生まれる過酷な住宅ローンがあった、と。  
それも錯覚から生じたものではなかったか。「マイホームさえ持てれば、幸せになれる。豊かな生涯が約束される」という一」 pp.486-487.  
「自分の手で「しいちゃん」の骨を掘りだしたら、保は本当に気が済むだろうか。本人は気が済むと思っているようだが、ひょっとするとそれは錯覚にすぎないかもしれない。一生、そのしきの衝撃を背負って生きていく羽目になっ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のだ。」 p.666.

고 있었고 태도 또한 상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 역시 평범한 삶을 꿈꾸던 여성이었다. 일찍이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였지만 실패하자 남편은 도망을 가버렸고, 그녀는 긴 세월동안 바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도미에는 쇼코의 행적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어린 나이에 힘든 경험을 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쁘지 않은 쇼코가 “신용카드에 빠져서 살았던 때는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착각 속에 빠져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라고 말한 뒤 성형에 미친 여자, 다이어트에 미친 여자, 필사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는 남자 등 많은 사람들이 제 나름대로의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던 혼마는 교코를 불행하게 만든 원인도 그녀의 아버지가 ‘마이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 풍요로운 생애가 약속된다’고 착각하고 무리한 대출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뒤 가족을 벗는 뱀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도미에는 예전에 남편에게 들은 뱀 이야기를 회상했는지 혼마와 다모쓰에게 뱀이 열심히 껍질을 벗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다모쓰는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답하지만 도미에의 남편은 다리가 있는 게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젠가 다리가 생길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각자 자라온 환경과 가치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는데, 도망 간 남편을 대신하여 그 책임을 다하며 살고 있는 도미에의 독백 같은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뱀 상관없잖아, 다리 같은 거 생기지 않아도. 뱀이니까. 어엿한 뱀이니까.

(p.489)<sup>8)</sup>

べつにいいじゃないのね、足なんか生えてこなくても。蛇なんだからさ。立派に蛇なんだから。

다모쓰 또한 이쿠미가 여기에 있었으면 “뱀에게는 다리가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다모쓰 자신이라고 말해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

8) 원문인용은 宮部みゆき(2012) 『火車』 新潮社에 의하며 논자가 번역하였다. 인용문에는 인용페이지를 기입하였다.

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다모쓰, 이쿠미, 도미에의 공통된 생각과 발언에는 다리가 없는 뱀의 본질을 인식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다. 뱀을 다 그린 뒤 사족을 덧붙이다가 다른 사람에게 술을 빼앗겨버린 중국 초나라의 에피소드를 참고해 볼 때 뱀의 다리는 쓸데없는 욕심이자 불필요한 행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뱀의 일화에는 자신의 처지에 맞는 삶 또는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건의 경위를 쫓는 혼마 또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혼마’라는 주인공의 1인칭에 가까운 3인칭”<sup>9)</sup>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본 소설은 “전차가 아야세(綾瀬)역을 출발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거의 얼어붙은 비였다. 어쩐지 아침부터 왼쪽 무릎이 아팠다”는 기술로 시작된다. 이것은 혼마의 정신적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혼마의 부인인 지즈코(千鶴子)는 늘 안전운전을 했지만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승진도 동료보다 늦었던 혼마는 현재 어린 양아들과 둘이서 살아가고 있고 범인을 쫓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휴직중이다. 그러던 중 약혼녀를 찾아달라는 조카의 부탁으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혼마는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부모도 지즈코도 이미 이 세상에는 없”는 현실에 자신이 매우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주목된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해가 저물자 한 사람 한 사람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집에 돌아가는데 아무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홀로 남겨진-그런 아이와 같은 기분이 든다. (p.277)

群れて遊んでいるうちに夕暮になり、友達は一人、また一人と母親の呼ぶ声に惹かれて家に帰ってゆくのに、誰も自分を呼んではくれず、気がついたらとり残されていた—そんな子供のような気分になる。

혼마는 처음 등장하는 장면부터 초조하고 불만족스럽고 무언가에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으며 자신의 허점이나 문제를 다른 사람 앞에서 표출하지 않으려 한다. 이것은 아내의 죽음 및 부상 등 그에게 닥친 연이은 불행

9) 朝日新聞社文芸編集部編(2002) 『まるごと宮部みゆき』 朝日新聞社, p.184.

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무리하게 연기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그가 사건을 조사하면서 고독 속에서 죽어간 쇼코의 얼마나 험난한 세상과 홀로 싸우고 있는 교코 등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작품 전체에 지즈코와 행복했던 나날들을 회상하는 장면이 자주 삽입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사건을 의뢰했던 조카는 초반부에 약혼녀 찾기를 포기했지만 혼마는 뭔지 모르는 힘에 이끌려 이를 지속하면서 그동안 외면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시간을 보내는데, 부상당한 상처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도 그의 내적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이야기를. 당신이 혼자 짊어지고 온 이야기를. 도망치려고 우왕좌왕했던 세월을. 당신이 남 몰래 쌓아온 이야기를”이라는 말에서 엿보이듯이, 처절한 고독 속에서 홀로 싸워온 교코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싶은 마음을 갖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 3. 현실에 눈을 감은 쇼코

쇼코는 주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베일에 감춰져 있던 쇼코의 삶의 전모는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하나씩 드러나면서 교코와 마찬가지로 “점차 생생하게 존재감”<sup>10)</sup>을 갖게 되는데, 그녀의 개인파산 신청을 담당했던 미조구치(溝口)변호사나 어린 시절 친구였던 다모쓰의 입을 통해 간략하게 소개되다가 한때 바에서 같이 일했던 도미에를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쇼코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친척들에게 외면당하고 가난했다.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엄마조차 집주인 남자와 바람을 피우게 되면서 어린 시절과 고향인 우쓰노미야(宇都宮)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지 않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쇼코가 도쿄로 간 이유는 더 이상 고향에 있고 싶지 않아서였다. 새로운 곳

10) 앞의 책 『まるごと宮部みゆき』 p.16.

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적은 월급에 답답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도쿄에서의 삶은 그녀가 꿈꾸던 삶이 아니었다. 그러한 삶에 바로 실증을 느끼게 된 그녀의 불행은 무리하게 월세가 비싼 맨션으로 독립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빚을 안고 있는 쇼코는 쇼핑, 여행 등의 용도로 카드를 쓰면서 꿈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기분을 만끽하였던 것이다.

혼마는 쇼코뿐만 아니라 누구나 예전의 자신, 지금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한 바람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살아가는 원동력이자 한 사람의 ‘개인’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이루기 위한 선택과 방법의 문제는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잘못된 예가 쇼코이다.

세키네 쇼코는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했다. ‘바람직한 자신’의 모습을 찾는 대신에 그러한 모습을 발견한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켜 주는 거울을 산 것이다.

게다가 플라스틱 모래 위에 지은 누각 위에 살며... (pp.559~560)

関根彰子は、その願望を果たすために、あまり賢明ではない方法を選んだ。「あるべき自分」の姿を探す代わりに、そういう姿を見つけたような錯覚を起こさせてくれる鏡を買ったのだ。

しかも、プラスチックの砂上の楼閣の上に住んで—

물론 작가는 미조구치변호사의 입을 빌려 “그녀가 겪은 일은 방향이 좀 바뀌면 당신이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쇼코를 문제가 있는 여자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대출 파산이 “공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빈곤이 아닌 소비자신용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거대 메커니즘 속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노력과 운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곤경에 처해있다고 믿”<sup>11)</sup>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작품이 『화차』라는 지적도 있듯이, 본 작품에는 신용카드사회가 갖는 구조, 금리, 행정, 교육 등 사회 시스템이 갖는 전반적인 문제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아울러 빚으로 인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살이나 살인, 도망을 선택하기 전에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코의 삶에 설득력이 부여되지 못하는 것은 안전운전을 하던 지즈코의 죽음이나 아버지의 잘못으로 불행에 빠진 교코, 즉 작품 속에서

11) 現代女性作家読本刊行会編(2013) 『宮部みゆき』 鼎書房, p.41.

언급되고 있는 “불공평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나 자신의 분수를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과는 그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단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자신이 왜 개인파산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쇼코는 말한다. 그러나 상경한 이후의 그녀의 행보를 보면 너무나도 단기간에 신용카드와 사채 빚이 천만 엔을 넘어서게 되었고, 그 원인이 현재의 삶에 대한 욕구불만에서 비롯되어 잘못된 형태의 소비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쇼코의 전신은 『화차』보다 1년 먼저 발표된 단편집 『대답은 필요 없어(返事はいらぬ)』(実業之日本社, 1991.10)에 수록된 「배신하지 말아줘(裏切らないで)」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의 초반부에 가가미 아쓰오(加賀美敦夫 이하 ‘가가미’)라는 형사가 차가운 기운이 몸에 스미는 역에서 전차를 기다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화차』의 시작 부분과 비슷하다. 가가미는 추운 겨울 늦은 밤 육교에서 떨어져 죽은 오우라 미치에(大浦道恵 이하 ‘미치에’)의 사인(死因)을 조사하게 되는데, 21세인 미치에는 낭비벽이 심한 여성으로 그녀의 방은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 잡지에 올릴 정도”라고 표현될 정도로 비싸고 화려한 물건으로 가득하였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상경하여 2년 동안 비서양성전문학교에 다녔지만 현재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프리타 생활을 하였다. 쇼코의 경우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미치에의 부모는 딸의 방세와 생활비를 원조하고 있었고, 그녀는 카드빚을 지면서까지 새로운 물건들을 계속해서 사들였다. 그녀의 방을 본 동료 형사는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도 없고 액수가 늘어나면 부모에게 의존해버리려 했다면서 미치에를 비판적으로 말하지만 가가미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가가미는 고개를 저었다. “현금대출이라 하며 카드 한 장으로 간단히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시대야. 사채도 그래. 카드로 쉽게 돈을 빌려줘. 머리를 숙일 필요도 없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 아, 이렇게 편하게 자신의 것이 되는 돈이라면 처음부터 자기 돈이었던 것보다 같다고 착각하는 젊은이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p.232)<sup>12)</sup>

加賀美は首を振った。「キャッシングだとか言って、カード一枚で簡単に金を引き出すこと

12) 宮部みゆき(1994) 『返事はいらぬ』新潮社, p.232.

ができるご時世だよ。サラ金だってそうだ。カードであっさり貸してくれる。頭を下げる必要もなければ、恥ずかしい思いもしないでいい。ああ、こんなに楽に自分のものになるお金なら、最初から自分のお金だったのと同じだ—と勘違いする若者が出てきても、仕方がないと私は思うよ」

즉 가가미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신용카드사회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착각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는 인간이 범하는 오류 또한 나타내고 있다. 잡지에서 튀어나온 2차원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그녀가 갤러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웬지 멋있어 보여서였다. “화려한 생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하는 대도시·도쿄의 묘사와 거기에서 죄의식 없이 카드파산의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여성의 심리묘사<sup>13)</sup> 표현이 뛰어나다는 지적처럼, 미치에는 부모의 원조와 신용카드 빛으로 자신이 도쿄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며 살았던 여성이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가장 마음에 드는 숏커트를 하고 행복한 기분에 들떠 있을 때 살해당하고 마는 것이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자신”의 모습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애완견 보케(ボケ)를 둘러싼 에피소드를 통해 드러난다. 혼마의 아들인 사토루(智)와 그 친구는 공원에 버려진 보케를 데려다 키우는데 어느 날 그 개가 죽은 채로 발견된다. 보케를 죽인 것은 같은 또래의 다자키(田崎)였다. 그는 공동주택단지에서 개를 키우는 것이 규칙위반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도 키우고 싶지만 대출을 많이 받아 지은 집이라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엄마의 말에 화가 나 그 분풀이로 보케를 죽여 버린 것이다. 그의 행동에 대해 혼마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앞으로 너희들이 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회에는 “본래의 바람직한 자신이 되지 못하”는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울분을 폭발적이고 광폭한 힘으로 청산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이 허다하게 넘치게 될 것이라고. (p.582)

これから先、お前たちが背負って生きぬいてゆく社会には、「本来あるべき自分になれない」「本来持つべきものが持てない」という忿懣を、爆発的に、狂暴な力でもって清算す

13) 茶木則雄(1994) 「解説」 『返事はいらない』 新潮社, p.309.

る—という形で犯罪をおかす人間があまた満ちあふ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

보케를 죽인 다자키의 행위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울분으로 미치에를 죽여 버린 요코(陽子)를 연상하게 한다. “옛날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지금 그녀가 전부 가지고 있어. 그것을 나에게 보란 듯이 자랑하고 있어. 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라고 요코는 말하지만 이는 그녀의 착각이었던 것이다. 혼마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는 이사카(井坂)는 사토루에게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다자키, 교코, 요코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경종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다.

여하튼 미야베 미유키의 작품에는 “단순히 ‘악’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촉매가 되어 사이드 스토리가 파생되고 다양한 테마(소년범죄, 속죄, 왕따, 가족, 우정 등)가 추구되고 있다”<sup>14)</sup>는 지적처럼, 작가는 『화차』의 인물들을 통해 범죄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내적문제 특히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 4. “제대로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이쿠미

쇼코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이쿠미이다. 소설에서의 비중이 높지 않아서인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지만 그녀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쿠미는 쇼코의 고향인 우쓰노미야 출신이다. “뿌리 없는 풀”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살고 있는 곳이 도쿄라는 언급과는 달리 우쓰노미야는 “원래부터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이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쇼코는 “황폐한 밭”<sup>15)</sup>과 같은 도쿄에서 빛을 지고

14) 앞의 책 『まるごと宮部みゆき』 p.73.

15) “그렇지만 지금의 도쿄는 인간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토지가 아니다. 수수함도 사라지고 비도 내리지 않고 갈 쟁이도 없는 황폐한 밭이다.(중략)그래서 지금 도쿄에 있는 인간은 모두 똑같이 뿌리 없는 풀이고 대부분은 부모나 그 부모가 가지고 있던 뿌리의 기억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pp.276-277.)

외롭게 살다가 불행한 운명에 처했다. 그러나 이쿠미는 도쿄에서 단기대학을 졸업한 뒤 5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직접적인 이유는 전근을 간 아들의 부재로 외로워진 부모가 그녀를 불렀기 때문이지만, “혼자 사는 것도 지쳤고 도쿄는 물가도 비싸고”라는 말에서 엿보이듯이 도쿄생활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었다.

우쓰노미야에서 다모쓰와 이쿠미를 만난 혼마는 그녀의 태도와 말을 통해 분위기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감과 꼼꼼함을 갖춘 여자라고 생각한다.

다모쓰의 말에는 오해가 있다. 근본적인 오해가. 그러나 거기에서 굳이 말대답하지 않는 이쿠미의 현명함에 혼마는 호감을 가졌다. 평범하고 특별한 미인도 아니고 학교 성적이 뛰어났다고도 생각되지 않지만 혼마 이쿠미는 현명한 여자다. 제대로 눈을 뜨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pp.346~347)

保の言葉には誤解がある。根本的な誤解が。だが、そこで強いて言い返さない郁美の賢さに、本間は好感を持った。平凡で、特に美形でもなく、とりわけ学校の成績が良かったとも思えないが、本多郁美は賢い女だ。きちんと目を開いて生きている、と思った。

이쿠미와 다모쓰를 연결해준 것은 쇼코의 엄마였다. 홀로 고독하게 살아온 쇼코의 엄마는 자주 가던 바에서 술에 취해 돌아가던 중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 자체가 흥기라고 느껴질 만큼 위험한 계단이었고 일전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던 도시코는 “여기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겠네요”라고 언급하여 도와준 사람을 놀라게 했던 적도 있다. 따라서 도시코의 죽음은 사고사라기보다는 일종의 자살행위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가던 이쿠미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구급차를 불렀던 것이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쇼코의 친구였던 다모쓰와 만나 결혼을 하였다. 어려서부터 자동차를 좋아했던 다모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본가인 자동차수리공장에서 일하는 건설한 청년으로 묘사되고 있다. 다모쓰를 처음 본 이사카 또한 현대청년의 바람직한 모습을 대표하는 듯한 “꼼꼼하고 성실한 좋은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쇼코는 다모쓰와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때도 가장 친한 친구였다. 다모쓰는 쇼코를 좋아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은 쇼코였다. 즉 이쿠미의 삶은 쇼코가 살았을 수도 있는 또 다른 인생을 조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쿠미는 강인함도 갖추고 있는 여자이다.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모쓰가 혼마를 도와 쇼코를 찾고 싶다고 말하자 이쿠미는 이를 허락한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고 쇼코가 빗을 지고 호스티스가 되어도 그녀를 계속 좋아하는 남편의 마음을 은연중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때 도시코의 죽음이 보험금을 노린 쇼코의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던 다모쓰의 죄책감을 완전히 떨쳐버리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즉 남편이 쇼코에 대한 미련과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사는 이상 현재 또는 미래의 삶이 행복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기에 이쿠미는 이 기회를 통해 결단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쿠미는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눈은 아직 울고 있었다. 마음 속 깊이 분할 것이다. 단지 이 현명한 여자는 다모쓰가 그럴 생각이 있는 이상 추억과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강하다고 생각했다. 이 강인함은 그녀의 천성일까? (p.365)

郁美は、涙こそこぼしていなかったが、目はまだ泣いていた。心底悔しいに違いない。ただ、この賢い女性は、保がその気である以上、思い出と闘っても勝ち目のないことを知っているのだ。

強いな、と思った。この強さは、彼女の持ち前のものなのだろう。

이후 혼마는 다모쓰의 옷차림이나 행동거지 등에서 꼼꼼하고 가정적이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쿠미의 흔적을 계속 느끼면서 자신의 죽은 부인을 떠올리곤 한다. 이쿠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상적인 여성으로 조형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혼마는 이쿠미에게 모든 일이 해결되면 비싼 것을 선물 받으라고 하는데, 그녀는 “땅이 있으니 집을 지어달라고 할 것이다. 통풍이 잘 되는 집에 살고 싶다”고 말한다. 마이홈 즉 집이 행복한 가정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는 이쿠미를 통해서도 일관되게 그려지고 있다. 적은 월급에 주택 붐에 편승하려고 무리해서 집을 샀던 교코의 아버지와는 달리 ‘땅’으로 대변되는 자신들의 굳건한 터전을 기반으로 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현명한 여성의 이미지가 마지막까지 어필되고 있는 것이다.

## 5. 나가기

“소비자금융 구조라든지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는 곳은 중요한 만큼 꽤 길”<sup>16)</sup>게 기술해 버렸다는 작가의 말처럼, 본 작품에는 다중채무, 신용카드 대출로 인한 파산이 잘못된 사회구조나 금리, 행정과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점, 자기파산이라는 제도에 대한 인간들의 부지(不知) 및 제도에 대한 설명 등이 매우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위 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는 인물이 교코와 쇼코인데, 교코는 마지막 장면에 잠깐 모습을 드러낼 뿐이고, 쇼코의 경우 소설 속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두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도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은 혼마의 추적과 주변 인물들의 언급을 통해서만 소개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적 장치는 오히려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관심을 집중시켜 개인 즉 인물을 들여다보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소리 없이 살아가는 무력한 우리 이웃의 목소리”<sup>17)</sup>에 주목해온 미야베 미유키는 『화차』에도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많은 인물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본 작품에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의 양상이 잘 묘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쓰노미야를 떠나 도쿄에서 잘못된 선택 즉, 카드빚과 사채로 쇼핑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진 쇼코는 교코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러나 도쿄의 환상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온 이쿠미는 현명하고 강한 여성으로 조형되어 있고 다모쓰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다. 쇼코와 이쿠미는 같은 고향 출신이자 다모쓰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쿠미의 삶은 쇼코가 살 수 있었던 또 다른 삶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의 첫 부분에 묘사되는 “얼어붙은 비”가 상징하듯이 현실세계는 냉정하고 어둡지만 자신의 현재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게 된 혼마가 마지막 장면에서 교코의 어깨에 손을 대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생각하는 장면을 삽입한 것과 같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인식하고 노력하는 이쿠미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투영해내고 있다.

16) 앞의 책 『まるごと宮部みゆき』 p.143.

17) 한정선 (2014) 『미야베 미유키, 우리 이웃의 ‘일상’을 추적하다』 『문학동네』 21, 문학동네, p.334.

### 【참고문헌】

- 강준상(2012) 「<화차> 왜 그녀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가?」 『월간 한국노총』 48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p.46 .
- 김경애(2017) 「트랜스미디어 현상과 문화적 변주 -소설 『화차』의 영화 <화차> 각색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9, 현대문화이론학회, pp.5-26.
- 이윤중(2015) 「젠더화된 속물성과 동물성 -<화차>와 <건축학개론>을 중심으로」 『石堂論叢』 63, 東亜大学校附設 石堂伝統文化研究院, pp.95-126.
- 한정선(2014) 「미야베 미유키, 우리 이웃의 ‘일상’을 추적하다」 『문학동네』 21, 문학동네, p.334.
- 朝日新聞社文芸編集部編 (2002) 『まるごと宮部みゆき』朝日新聞社, p.16, p.73, p.143, p.184.
- 現代女性作家読本刊行会編 (2013) 『宮部みゆき』鼎書房, p.41.
- 佐高信(2013) 「解説」 『火車』新潮社, p.691.
- 茶木則雄(1994) 「解説」 『返事はいらない』新潮文庫, p.309.
- 高橋敏夫(1993) 「「火車」 追走--松本清張と宮部みゆき」 『すばる』 15(11), 集英社, pp.280-299.
- 谷川充美(2006) 「家を買う父--宮部みゆき『火車』、『理由』における父親像から」 『安田女子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 12, 安田女子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p.217.
- 宮部みゆき(2012) 『火車』東京新潮社, pp.276-277, pp.346-347, p.365, pp.486-487, p.489, p.546, pp.559-560, p.582, p.666.
- \_\_\_\_\_ (1994) 『返事はいらない』新潮社, p.232.

논문 투고 일자 : 2018. 04. 12.
논문 심사 일자 : 2018. 04. 30.
게재 확정 일자 : 2018. 05. 09.

＜要旨＞

『火車』に投影された「あるべき自分」の姿

尹惠映

本稿では、宮部みゆきの『火車』における「錯覚」というキーワードを中心にしてその様相を確認し、関根彰子と本多郁美という二人の作中人物を通して、「あるべき自分」の姿の具体像について考察した。本稿での考察から、作中人物たちは様々な「錯覚」をしながら生きている。そして、元々足のない動物である「蛇」の本質を想起させるエピソードには、自分にふさわしい生き方を認識しありのままの自分を受け入れることが大事だという意味が込められていることが分かる。具体的に述べれば、「あるべき自分」の姿を探す代わりに、そういう姿を見つけたような錯覚を起こさせてくれる鏡を買った彰子は、自らの間違っただけによる不幸に落ちた女性である。しかし、似たような状況に置かれていた郁美は「賢い女性」として描かれており、彰子を愛していた保と結婚して幸せな日々を送っている。自分にふさわしい人生をきちんと認識し努力する郁美を通して、現代社会を生きている人たちに正しい生への姿を提示していると言える。『火車』は、ドラマや映画に制作されながら大衆的な人気を集めてきたために、これまで映画に関連した評論が多い。作品研究の場合は、「バブルの崩壊」、「信用不安」、「自己破産」などの社会的問題や新城喬子に注目して考察してきた。本論により、作品解釈の幅を広げ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点において研究意義があると言える。

Desirable self-concept of modern human beings is reflected in *kasya*  
(*fire chariot*)

Yun, Hye-Young

This paper focuses on the key concept of self-delusion in Miyabe Miyuki's *kasya* (*fire chariot*) and examines the desirable self-concept of people in modern society through Sekine Shoko and Honda Ikumi. The characters in these works live by various self-delusion. In the novel, an anecdote is introduced to remind the reader of the actual state of a snake, an animal without any legs. This implies that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and accept the actual circumstances of one's own life and identity. Specifically, Shoko is a woman who is miserable because of her wrong choices, "who bought a mirror that reflects her delusional self-concept instead of reflecting her actual self". However, Ikumi, who had been in a similar situation, is portrayed as a wise woman who lives a life that Shoko could have lived too. Ikumi, who accepts the reality of her own life and works hard to improve her circumstances, represents the desirable life of human beings in modern society.